

유니세프한국위원회 찾은 벨기에 왕비

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| 입력 2019-03-27 16:00:00 | 수정 2019.03.27 15:56:13



마틸드 벨기에 왕비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열린 '벨기에 마틸드 왕비 참석 청소년 간담회'에서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국민 방한 중인 마틸드 왕비는 이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국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. 왼쪽 세번째부터 마틸드 왕비, 그룹 NCT 재민, 송 회장, 이기철 사무총장. 2019.3.27/뉴스1